

순천만국가정원 그린루트를 주제로 연중 문화행사 시작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정원문화(감성) 그린루트'를 주제로 올해 12월까지 매주 주말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원문화(감성) 그린루트'는 AI와 문화콘텐츠를 덧입혀 우주인도 놀러오는 정원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로 개장한 국가정원에 아날로그 감성의 빛을 더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국가정원만의 차별화된 수준 높은 문화행사를 위해 ▲콘텐츠

강화 ▲콘텐츠 개선 ▲콘텐츠 창출 등 크게 3개 전략을 수립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문화콘텐츠 강화를 위해 매주 토요일 17시 스페이스 허브에서 정원 감성을 살린 수준 높은 기획 콘텐츠 공연을 개최한다.

지난 4월 13일에 첫 번째로 시작한 플루티스트와 남성 6인조 관악기 밴드가 잔디와 호수를 배경으로 퍼포먼스를 실시해 관람객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오는 5월부터는 콘텐츠 개선을 통한 자체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순천의 스토리를 담은 캐릭터 카페 레이드를 매주 토요일에 실시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또, 정원의 새로운 문화콘텐츠 창출을 위해 지역 청년들의 버스킹 공연 등도 다채롭게 편성해 지역의 문화예술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번 문화행사에 주목할만한 점은 정원과 조화로운 공연을 위해 대규모 음향과 무대, 대규모 출

연진을 없애는 3無전략이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반짝 진행되는 행사보다는 꿈과 감성을 섬세하게 자극해 깊은 여운을 남기는 정원문화 3無 전략은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원운영과에서는 국가정원을 직접 방문하지 못한 시민이 일상에서도 정원문화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행사 사진과 공연 영상을 국가정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최종민 기자

여수, 청년단체 역량강화 공모사업 추진

팀당 최대 800만 원 지원...30일까지 참여단체 모집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청년들이 지역 사회 활동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4년 청년단체 역량강화 공모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청년단체 역량강화 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스스로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내용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복지·자치 역량강화사업 △지역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위한 청년단체 활동 △지역 주민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지역생생 발전 프로그램 등이다.

시는 청년들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청년단체 활동,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연계 공모사업을 추진해 청년 단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내용의 적격성 등 심사를 통

해 총 3개 팀을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팀당 활동 수행비를 최대 800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이전 여수시 읍면동, 마을 등에 설립된 청년단체(기업)로, 여수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청년(18세~45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단체는 오는 30일까지 청년일자리과(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김태완 여수시 청년일자리과장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춘 지역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리더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종민 기자

구례군, 친환경 포충기 정비

구례군은 최근 해충 퇴치를 위해 군 전역의 친환경 포충기를 일제 정비했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해충의 활발한 초기 활동이 예상됨에 따라 군은 선제적 방역에 나섰다.

현재 구례군 보건의료원은 포충기 18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례읍 강변길, 문척면 마을회관, 광의면 유산각 등 5개소에 해충 유인기를 추가 설치했다.

해충 유인기는 포충기로도 불리는 물리적 방제기로 방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치는 해충을 유인하는 빛과 자외선 파장(350mm~400mm)을 이용해 모기, 동양하루살이, 깔따구 등의 날벌레를 유인해 퇴치한다. 유인기 내 1차 팬의 흡입력으로 해충을 빨아들인 후, 2차 팬으로 해충을 타격해 잔해를 아래로 배출하는 구조다.

또한 군 보건의료원은 기온 상승에 따른 해충 개체 수 증가를 막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172개 자율방역단과 함께 주거 밀집 지역과 5일시장 주변 하수구·오수관에 유충구제 약품을 투입했다.

구례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주민들은 내 집 앞 고인 물 제거, 페타이어와 고무통의 빗물 고임 방지 등을 통한 해충 서식지를 제거하고 질병관리청 국민행동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홍경식 기자



광양시(광양시립도서관)가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광양시 올해의 책 선정을 기념해 '2024 올해의 책 선포식 및 북 콘서트'를 운영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올해의 책 선포식 및 북 콘서트 성료

광양시(광양시립도서관)가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광양시 올해의 책 선정을 기념해 '2024 올해의 책 선포식 및 북 콘서트'를 운영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중앙도서관 문화공간 '하루'에서 진행된 이번 선포식 행사에는 올해의 책 작가 북 토크와 클래식 음악 공연이 함께 진행됐으며, 질의응답 및 사인회 등 시민 참여 시간도 마

련됐다.

'광양시 올해의 책'은 ▲어린이 부문 '열세 살의 건기 클럽(김혜정 작가)' ▲청소년 부문 '비스킷(김선미 작가)' ▲성인 부문 '카페 네버랜드(최난영 작가)' 등 3편이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작가와 만남을 통해 책이 완성되기까지의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며 "책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올해의 책 선포식'을 시작으로 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독서 분위기 조성 등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독서릴레이 ▲작가초청 강연 ▲올해의 책 독후감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종민 기자

곡성군, 블루베리 공선회 활성화 협의회

곡성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교육관 2층 세미나실에서 기술보급과장의 주재아래 관계자 3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선회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블루베리 공선회는 블루베리 생산의 규모화와 균일화로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의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에 조직 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공동선별 상 황보고 및 2024년도 블루베리 품질향상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공유했다.

협회의 주요 내용은 군은 농협과 협업을 통해 공선규모를 점차 확대해 블루베리 조기재배 주요산지로 입지를 확보하고 노지 블루베리 재배를 시설하우스 이용 가운재배

로 수확시기를 앞당기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논의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공선회와 함께 블루베리를 곡성군 대표작물로 육성해 전국 최고 블루베리 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작년 기준 생산량 180톤, 조수입 56억 원을 달성해 주요소득과수로 자리매김한 것에 이어 2025년까지 기반 시설 지원을 통해 생산량 250톤에 조수입 77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9ha 규모의 재배면적을 2025년까지 50ha까지 확대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장기간 생과를 지속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산지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심선섭 기자

· 사단법인 영광법성포 글비 보존협회 회원업체
· 전라남도 지정 영광글비특산물사업단 회원업체
· 영광수협 중매인 18번

2代째 이어온 전통방식의 명품글비

축가네 경성글비

국내산 참조기만을 엄선하여 1년이상 간수가 빠진 천연소금으로 간하고 해풍과 습도가 알맞은 영광 법성포에서 건조하여 그 깊은 고유의 참맛을 유지하였습니다.

대표 이경률

매장 : 전남 영광군 법성면 연우로3
공장 : 전남 영광군 흥농읍 상단길2길 48

주간 061) 356-2173 야간 061) 356-5932
팩스 061) 356-4215 문자 010-8604-1486
핸드폰 010-3624-2173 / 010-3833-2173
농협 351-1092-5533-13 예금주 : 이경률